

제2023-17회
(임시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7호

중앙집행위원회

일시 2023. 8. 16. 21:00

장소 원격영상회의 (회의 참가 링크: <https://kaist.zoom.us/j/86930522910?pwd=WkRDVWt5SUhsMEVaeN6aWRIN2NTQT09>)

의사 일정

보고안건 제1호 / 보고안건 제2호 / 보고안건 제3호 / 심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1호 / 논의안건 제2호 / 논의안건 제3호 / 논의안건 제4호

부의 안건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
-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
-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 논의안
-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 논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개회·정회·유회 또는 폐회의 일시

개회 일시	2023. 8. 16. 21:04
정회 일시	2023. 8. 16. 22:08
속회 일시	2023. 8. 16. 22:18
폐회 일시	2023. 8. 16. 23:38

○개회 시 출석 중앙운영위원(14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청가 중앙운영위원(3인)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고은서(대리: 과대표 김민주)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윤서진(대리: 과대표 이연희)
/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박재익(대리: 집행부원 성원)

○결석·지각·조퇴 중앙운영위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동헌(결석) /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손선호(결석) /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안준서(결석)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도운(조퇴)

○서기

중앙집행위원회 사무팀장 박재은(21:04~22:18) / 중앙집행위원회 재정사무국장 전성원(22:18~23:38)

○전문기구 측 참석자

감사원 원장 김현섭

의 사

(개회 21:04)

통해 학우분들께 송출됩니다.

○의장 한정현: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재석하신 중앙운영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한 위원 및 대리인께서는 화면을 송출하는 회의 안내 사항에 따라 참가자명을 변경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회의에서는 청가서를 제출한 3인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대리인이 참석하였는데, 대리인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석한 중앙운영위원께서는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하여 재석하였음을 표시해 주시기바라며 대리인께서도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셔야 본인이 대리로 참석한 학생회장분의 출석이 인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무팀장께서는 상황을 점검하여 간사 대리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 최우정: 네,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석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재석 17명입니다. 이상입니다.

*14명으로 정정

○의장 한정현: 간사 대리님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그러는데 한 번만 더 성원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사 최우정: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나요?

○의장 한정현: 네, 확인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1시 04분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3건의 보고안건과 1건의 심의안건, 4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안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이위키에서 해당 안건지와 구체적인 참석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A에 업로드한 소집공고에서도 해당 안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안녕하십니까? 중앙운영위원회 의장 한정현입니다. 본 회의는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임시 회의로 학생회칙 제5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소집하는 임시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지난 8일에 예산안 및 결산 심의 서류 제출 공지, 특별기구 재심의안 서류 제출 공지 등에 따라 각 기구에서 심의에 필요한 서류들을 현재 준비 중에 계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기층기구회계 분배안과 중앙회계 분배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023-5회 중앙운영위원회 2월 정기회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은 궤로서 다음 하반기에 있을 예산 분배 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들을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더욱이 2023년도 상반기 때 2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진행된 내용들을 하반기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또한 새롭게 설립된 신규 학과 학생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금일 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관하여서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신규 학과 학생회에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회의에서 다루는 안건들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본회 산하기구가 사업을 진행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되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회의 구성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의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 사항입니다. 간사 대리께서는 보고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 최우정: 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23-16회 중앙운영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7일 21시 10분에 개회하여 같은 날 23시 08분에

폐회하였습니다. 1건의 보고안건, 1건의 심의안건, 1건의 논의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를 원안대로 접수하였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는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발의안에 제10조의 제2항 중 “전학대회에서”라는 문구의 ‘에’를 ‘내’로 쓴 것을 ‘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논의안건 제1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이 2023년 8월 9일 수요일에 학부, 학과 학생회의 근로장학생 등록 관련하여 중앙운영위원 대상으로 안내하였으며 각 학과에서 학과 행정팀에 문의 및 조사하여 다양한 결과로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및 보완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추후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제2023-15회 중앙운영위원회 논의안건 제2호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의 후속 결과로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견에 관하여 소통국제화위원회 의원들과 내부적으로 논의하였고, 그 결과 중앙운영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공식 소통 매체를 공고 또는 공지하고, 공식 소통 매체가 최신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실제 활성화된 소통 매체와 다르게 공식 소통 매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회원들의 제보를 받아 공식 소통 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제2의 공고 또는 공지 방법 및 시기, 제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소통국제화위원회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정리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렸습니다. 끝으로 현재 중앙운영위원회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VOK 2023년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VOK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전산학부 학생회 2023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제2023-15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안건 제2호로 다루어진 번역평가제도 개편 논의안에

대해서는 소통국제화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와 추가로 수령한 전학대회 대의원의 의견을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간사 대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소통국제화위원회 측에 문의하였고 그 결과를 회신 받아서 마찬가지로 차회 중앙운영위원회까지 보고 사항으로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간사 대리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의사일정은 보고안건 제 1호부터 제3호까지, 심의안건 제1호, 논의안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중앙운영위원들께 공유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의사일정의 변경 동기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린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별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말씀드린 대로 보고안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심의안건 제1호, 논의안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확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입니다.

1.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의장 한정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 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 회칙 제74조제2항에 따라 총학생회장단이 의결기구의 본회 및 본회 회원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총학생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월 7일 오후 3시 이석봉 대전광역시 경제과학부시장의 미팅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미팅은 경제과학부시장님,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장과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작성한 내용과 같이 총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카이스트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의의 후속 논의로서 내일 다시 한 번 경제과학부시장님과 학부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이 함께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23 제1회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다른 대학교의 총학생회와,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중앙집행위원회 6인, 그리고 중앙운영위원 2인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사항 발표 드리겠습니다.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제출한 단체급식 식당 만족도 개선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회의는 8월 11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졌으며 문영주 시설팀장님, 김세림 고객경영팀장님, 그리고 고객경영팀의 선생님 두 분과 대학원 총학생회장, 학부 총학생회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회의를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 총학생회 그리고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제출한 4가지 안, 내용에 상세히 기입된 4가지 안에 대해서 고객경영팀의 검토 결과와 그에 대한 학부, 대학원 총학생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액션 아이템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회의의 추후 논의로서 내일 오전 10시 다시 한 번 학부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그리고 고객경영팀장님과 고객경영팀의 선생님들이 만나 다시 한 번 만족도 개선안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이 회의에는 업체 측, 동측 식당, 서측식당 그리고 카이마루 및 교수회관을 운영하는 식당 총 3곳의 업체 관계자분들도 참여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지난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시점 이후부터, 이번 중앙운영위원회 안건 제출 시점까지 크게 세 가지 골자로 총학생회장단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제과학부시장 미팅에 참여하고, 제1회 총학생회 공동포럼에 참석하고, 단체급식 식당 만족도 개선안 검토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골자에서 명확하지 못한 내용이라 추가적으로 문의 사항이 없는,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문이 없더라도 총학생회장단 보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다면, 총학생회 이메일 혹은

총학생회장단의 개인 연락처를 통해서 자유롭게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보고 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

○의장 한정현: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 및 제116조에 따라 전문기구장의 사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던 조호정 학우가 학부 졸업을 사유로 2023년 7월 1일자로 해당 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위원장 사퇴를 의결한 소통국제화위원회 회의에서 신임 위원장을 동시에 내부호선 하였습니다. 위원장 직 사퇴 이후에 조호정 학우는 졸업 직전까지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새로 인준될 신임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소통국제화위원회 측에서 안건 내용에 기재해 주셨습니다. 사퇴 사항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붙임 자료를 통해 사퇴 의결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통국제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6월 중 개최된 전체 회의에서 사퇴를 의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사퇴하였습니다. 붙임 자료에는 6월 21일자로 진행된 회의에서 사퇴를 의결하였다고 적혀 있는데, 주요내용에는 7월 1일자로 기재해 주셔서, 중간에 텀이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말씀드린 일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명료하지 못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와 관련하여 별도로 질문이나 의견이 없다면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3.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90조에 따라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결과를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소통국제위원회 위원장 직을 수행하던 조호정 학우가 학부 졸업을 사유로 2023년도 7월 1일자로 해당 직에서 사퇴함과 동시에 같은 회의에서 내부적으로 정시윤 학우가 위원장으로 단일 출마하여 내부호선되었습니다. 붙임 자료를 통해 내부호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통국제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6월 21일에 개최된 제2023-1회 전체회의에서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안건에 관해 총원 5명 중 재적 5명, 재석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시윤 위원을 새로운 위원장으로 내부호선하였습니다. 학생회칙 제90조에 따라 감사원을 제외한 전문기구의 기구장은 내부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내부호선 결과를 보고한 이후에 전학대회에서 인준받게 됩니다. 그에 따라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 제출한 내부호선 보고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안건 내용에 명료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여서 별도의 질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에 관하여 별도의 질문에 의견이 없으면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총학생회장 강동재: 없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추가적인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내부호선 보고가 원안대로 접수됨에 따라 소통국제화위원회에서는 전학대회로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인준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해당 인준안은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들과의 협의에 따라서 9월 중 개최하는 차기

전학대회 4분기 정기회의에 부의할 예정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4. 심의 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의장 한정현: 심의안건입니다.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상정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19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개정세칙안·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세칙 또는 규칙의 경우에는 그 개정안의 발의, 심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본 안건을 발의한 감사원에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원장께서는 주요내용부터 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의 특성상 회칙, 세칙 또는 규칙 개정안의 특성상 축조심의를 하여 하므로 축조심의를부터는 제가 별첨자료 2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주요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원 원장 김현섭: 감사원입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시행세칙상의 겸직금지 조항이 학우들의 감사원 위원 참여를 저해하고, 위원 모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여서, 이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였고요. 또, 이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감사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시위원을 모집할 그런 제도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추가적으로 10조의2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상반기 정기회계감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 결원 보충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14조의 겸직금지 대상을 피감기관의 장으로 축소하여서 위원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기 위함이고 또,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임시위원의 자격, 모집,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따라서 모집할 수 있는 회칙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 감사시행세칙 제4조도 개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하다 보니까, 회계 담당자, 회계 책임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를 하였습니다. 별첨 자료 1, 2, 3에 신구조문대비표와 개정 취지, 그리고

개정문을 첨부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별첨1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별첨2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신규조문대비표를, 별첨3으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의 목적 및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신규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축조 심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본 세칙에서 “피감기관”이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본회 산하기구를 말한다. 제1호, 집행기구(로),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제2호, 자치기구(로),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제3호, 전문기구(로),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제4호, 특별기구. 제5호,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 제6호, 그밖에 학생회칙에 따라 설치된 모든 단체.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제2항, 본 세칙에서 “회계 담당자”란 피감기관의 통장을 관리하거나 회계자료를 제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항, 본 세칙에서 “회계 책임자”란 회계 담당자 중에서 제22조제3항에 회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사람으로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회계 담당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공금 관리자와 회계서류 제출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서류 제출자를 해당 피감기관의 회계서류 총책임자라는 의미로서 “회계 책임자”라고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운용세칙 제17조제2항의 회계 책임자에 대한 의미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10조의2 임시위원입니다. 제10조의2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감사원장은 감사위원회 수가 4인 미만이어서 해당 반기에 정기회계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시위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2항, 임시의원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2명으로 압축한다. 제3항, 임시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날로부터 해당 반기의 정기회계감사보고가 의결되는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제4항, 임시위원의 신분보장 및 의무는 제12조의2 및 제13조를 따른다. 지원자 미달, 결혼 등으로 위원회 수가 감사시행세칙 제10조에 규정된 위원의 수보다

적어, 원활한 회계감사 시행이 원활한 정기 회계감사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 이를 시행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임시위원을 모집하고 인준하고자 하여, 이에 대한 회칙상의 근거가 부재한 부분을 타파하고, 임시위원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감사시행세칙에 임시위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제10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겸직금지. 감사위원은 임기 중 피감기관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재직 중을 임기 중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피감기관의 대표와 위원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의 구성원으로 상당히 넓었던 겸직금지의, 겸직금지의 범위를 피감기관의 장으로 현격하게 축소하였습니다.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피감기관의 장으로 겸직금지 대상을 축소한 것에 대한 효과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피감기관의 회계와 관련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 국원 또는 집행부원까지 감사원 위원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보았으며, 겸직금지 조항 또한 감사원 위원이 부족한 현재 문제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14조에 의한 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피감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기 회계감사 등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에서 공정성을 해칠 염려가 아직까지는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감기관의 장은 겸직금지 대상으로 아직까지는 보는 방식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의 제안설명 및 축조 심의를 마쳤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별도로 질문이 없으면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의 표결을 개시하고자 하는데 표결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 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의 표결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배부해드린 전자투표 링크로 접속하여 심의안건 제1호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및 참관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안내해드립니다.

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위원이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재석 13명 중 찬성 1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가 됩니다. 감사원에서는 안건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퇴실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으로 심의안건 제1호 마치겠습니다.

5.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상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

○의장 한정현: 네, 논의안건입니다.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상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구별 중앙회계 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중앙회계를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 중 2023년도 하반기에 중앙회계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구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실행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기구별로 필요한 중앙회계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였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단체별 중앙회계 지원금 신청 금액의 총액이 예상 학생회비 수입에 따른 중앙회계 금액을 초과하여 기구별 미팅을 통해 감축안을 논의하였습니다. 2023년도 8월 10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기구별 미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을 제안 드립니다.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입니다. 학생회비 수입 5,800만 원 중 60%가 중앙회계로 배분되며 의결기구,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생복지위원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 축제 지원금, 감사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G-ink, VOK, SPARCS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중앙회계 지원금을 배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23년도 상반기에 집행한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60% 중 전체 60% 모두 사용하였으며 잔액은 0원입니다. 상반기 때 석림태울제나 KAMF, 카포전 등 본회 여러 축제가 상반기 예산에 몰려 있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이월금을 550만 원

상당을 사용했었고요. 이를 차기 총학생회의 이월금을 사용한 상태로 저희 재정 상태를 넘겨줄 수는 없으므로 하반기 학생회비 중앙회계에서 이월금을 다시 채워 넣는 형식으로 분배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2023-5회 중앙운영위원회 2월 정기회의에서 2023년도 상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을 심의할 때도 이월금을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붙임 자료로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 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보시는 표와 같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회계 지원대상 기구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만 의결기구의 경우에는 평균치나 퍼센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포함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을 포함하여 보다 높은 수치로 배분안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3년도 하반기 중앙에 분배안은 두 번째 표와 같습니다. 관련해서는 중앙회계지원 대상기구의 기구장 및 회계 담당자께서 예산 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고, 그 덕분에 상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예산 배분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에서 요청한 만큼 원하는 금액만큼의 중앙회계를 배분해드리지 못함에 본회를 대표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본회의 재정 상황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에 관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관련해서 검토 시간 포함해서 2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2분 동안 검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없으신 것으로 보여서,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논의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부의해서 예산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올해 상반기 때, 2월달에, 제가 사실상 그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동안 이 예산 비율을 미리 작성해 오는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 필요한 예산을 올해 학생회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작성한 다음에, 회의에서 일일이 조정하고 감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상당히 길어지고, 또 각 단체에서 소모하는 집행력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해당 기구가 예산을 해당 반기에 운영비로 혹은 사업비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방법이라고 느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드린 것처럼, 지난 몇 년간 축적된 유의미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금년도 해당 반기에 받을 수 있는 적합한 예산의 추정액을 가이드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을 작성하고, 세부적인 디테일을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다음에, 일치하는 부분은 실행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토론할 수도 있고, 회의에 가져가서 논의에 부칠 수도 있고, 그것도 어려울 경우에는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정된 최종적인 안을 예산안으로서 중운위와 전학대회에서 심의하기 전까지 마련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학대회에서 예산안과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는 것이 가장 최적화되고, 어떻게 보자면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방법조차 시도가 되지 않았던 그동안에 비해서 이런 방법들이 실행되고 또 그 과정에서 각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지금은 별도로 질문이 없었지만 또 여러분들께서, 중앙운영위원들께서 각 학과를, 단체를, 대표해서 참석한 회의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과정이 잘 이행되는 덕분에, 우리가 32개, 이제 34개로 늘어난 학부 총학생회 산하단체들이 예산을 배분 받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안과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심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런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동안 여러 사례들로 조금 지지부진했던 것들을 조금씩 개선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협조와 또 산하기구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기관이나 학교 총학생회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 총학생회도 더 잘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나마 우리 학부 총학생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다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34대 학부 총학생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일 수도 있고 또 단순히 페이퍼 워크에 그칠 수도 있는, 이런 심의 과정들 예산안이나 사업 계획서를 심의하는 과정들이

절차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체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들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는 과정으로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시행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가 9월 중순까지 이런 절차들이 한 두세 번 더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와 적극적인 참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의견이나 질문 없으신 것으로 보여서 별도 이의가 없으면 논의안건 제1호는 제안한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 대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안건 제1호를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제안한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대로 확정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에 소속 학과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심의를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는 여러분들께서 속해 계시는 학과의 예산을 배분하는 논의가 되겠습니다.

6.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 논의안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기구 별 기층기구회계 지원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기층기구회계를 배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023-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제도 도입안 수정안에 따라 기층기구회계를 분배하였습니다. 기층기구회계 총액의 60%는 인원 비례로 분배하고, 40%는 운영 점수 등급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인원 비례는 학적팀에서 제공받은 2023년도 가을학기 학사과정 학과별 재적생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운영 점수 등급은 회의 출석 점수 10점,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점수 10점, 번역 점수 2점입니다. 회의 출석 점수는 2023년도 상반기 의결기구 출석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2021

제12차 전학대회 논의안건4, 의결 결과에 따른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를 포함합니다.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이후로 개최되는 의결기구 출석 기록은 당연히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 앞으로 9월 정기 전학대회 전까지 결석하는 회의들이 발생할 경우에 출석 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는 2023년도 8월 1일에 설립 인준안이 의결되었으며, 학생회장 선거 시행 전이어서 소속 중앙운영위원회이 궐위이므로 회의 출석 점수를 만점을 부여했습니다. 회의 출석 점수는 만점에서 결석 시 마이너스 1점, 지각 또는 조퇴 시 마이너스 0.5점을 감점하는 형식으로 산정이 됨으로, 학생회장이 궐위 기간 동안에는 그동안 점수를 감점하지 않아왔습니다. 같은 이유로 출석 점수는 별도로 감점하지 않고 10점으로 부여했습니다.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점수입니다. 총점 10점으로, 제2023-3회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의 감사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번역점수 총점 2점으로, 제2023-3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하반기 번역평가보고서, 가을학기 1차 보고서 및 2차 보고서를 포괄합니다. 해당 보고서의 번역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논의 사항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20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보고서가 제작될 당시에 학생회가 존재하지 않아서 감사 점수가 부재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의 점수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제2023-3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4회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된 기층기구 예산 편성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번역 점수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하반기 번역평가보고서가 심의될 당시에는 두 학생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점수가 부재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중앙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대략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는지 소속 학과의 학생회장들께 안내해 드려야 하므로,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오늘 회의를 포함해서입니다, 이 회의를 포함해서 이후 개최되는 의결기구 출석 점수 및 지각 제출에 따른 감점은 미반영한 상태로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 시스템공학과 학생회 감사 점수와 번역 점수를

만점으로 한 상태로 분배안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학생회비 수입 5,800만 원 중에 20%가 기층기구 회계로 배분이 되고요. 그중 60%가 인구 비례, 40%가 운영 점수 등급 비례입니다. 인원은 학적팀에서 제공한 자료를 그대로 따랐으며, 운영 점수 등급은 ABCI로 구분되며, C와 I는 감사 점수나 번역 점수가 특수한 사정이 아닌 단체에 귀속된 책임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부여되고, I 등급은 기한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7일을 초과하여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을 때 I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층기구 2023년도 상반기 기구 운영 점수표입니다.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요, 감사보고서 4분기, 1분기 그리고 평균 점수, 번역 평가 보고서 가을학기 1차, 2차, 평균 점수를 각각 1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번역 점수는 2점 만점 환산하고, 회의 출석 점수는 아래 2번으로 들어간 출석 현황을 반영해서 1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표현해가지고, 환산 점수를 총 22점 만점에 몇 점으로 매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50%, 현재 총 20개의 학과 학생회가 있으므로 10개 학과까지 A를 부여하고, 하위 10개 학과에 B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배안으로 제안 드린 이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각 A, B 등급을 부여받은 학과는 다음과 같고, A, B 등급을 부여받음에 따라서 반영되는 지급액은 보시는 표의 내용과 같으며, 인원 비례 지급액과 운영 점수 등급 비례 지급액을 합친 지급 예상액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천 원 미만은 반올림 되어서 타 학과의 지급 규모에 따라서 반올림 되거나, 올림 되거나, 내림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아직 모든 점수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반올림에서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략 이 정도 규모로 지원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각을 한다거나, 결석을 한다거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늦게 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출석에 관해서는 붙임 1에 첨부한 출석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석은 마이너스 1점, 지각 조퇴는 각각 마이너스

0.5점이고요. 지각하고 조퇴하는 경우는 0.5
곱하기2라서 마이너스 1점이라 결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마이너스 1점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면 마이너스
0.5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에 관해서는
붙임2로 첨부하였습니다. 제2023-4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번역 점수나 감사 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기층예산심의회의
의결로 정하여야 하는데 저희는 중운위 의결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금 회계 분배 논의안과 관련하여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학부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운영 점수 관련해서 뇌인지과학과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 대해서 여쭙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의결을 통해서 다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뇌인지과학과와 반도체시스템공학과는, 두
학과 모두 운영 점수가 22점으로 만점인 것 맞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은 운영 점수
등급에서 지금 보여주신 표에서 뇌인지과학과는 A
등급을 받았고 반도체 시스템과는 B 등급을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둘 다 만점으로 동일하면 A 등급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점수를 환산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기구 다 모두
만점으로 A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내용 확인
후에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혹시 다른 오류도
없었는지 그 점수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를 해
주시면서 그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해 주신 부분 엑셀 함수를
보면서 점검 완료하였고요. 반도체시스템공학과랑
바이오및뇌공학과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점수가 잘못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스템공학과가 A등급이고 바이오및뇌공학과가
B등급이어서 각각 1.5, 1의 가중치를 받음에 따라
바이오및뇌공학과에서 받는 반영 지급액이, 운영 점수
등급이, 18만 5,600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가 27만
8400원, 그러니까 A를 받으면 27만 8,400원, B를
받으면 18만 5,600원입니다. 더해서 바이오 및
뇌공학과가 기존에 보여드리는 내용에서
35만6,012원으로 반도체시스템공학과가 444만
2833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결과 공고 전에
수정하여 각 기구에 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변동되는 내용 변경되는 예산
없습니다. 네 면밀한 검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회의에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은요,
이제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뇌인지과학과의 감사
점수와 번역 점수를 몇 점으로 부여할 것인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 점수량 번역 점수를 모두
만점으로 부여하게 되면은 각각 A등급을 부여받게
되고 인구 비례 로 받는 금액에서 27만8400원을
추가로 부여받게 되어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몇 가지 질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고자 발언권 요청드렸고요. 첫 번째로 혹시
2023-4회 때 논의한 저 기준은 상반기를 기준으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했었는지 아니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를 저 기준으로 하자고 논의를 했었는지 확인차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요.

○의장 한정현: 전체를 대상으로 의결하였으며,
별도의 수정안이 의결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기준이
지속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 안의 주요
골자였고요. 그에 대해서 기존 도입안의 주요
골자였고, 그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를 해가지고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저 안에 따르면 A와 B 기구가 전체
기구의 운영 점수를 대상으로 50%씩 나눠서 기구를
매겼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지금 저 기구를 만점으로 할 경우에는 원래
50% 안에 들었던 기구가 저 기구가 만점을
받음으로써 50% 밖으로 밀려서 A에서 B로 바뀐

기구가 존재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기구 입장에서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 같아서 점수를 책정하지는 않되, 그냥 A로 정하여서 A인 기구가 50%는 넘더라도 기존 A였던 기구가 B 기구로 되지 않으면서 신규 학과가 A가 되면 어떻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학과가 나눠갖기 때문에 돈은 조금씩 줄겠지만, 모든 학과가 느끼기에, 특히 A에서 B로 바뀌는 학과가 느끼기에 훨씬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말씀해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였고요. 다만 저희가 의결한 내용에 A 등급은 운영 점수가 상위 50% 이내에 해당할 경우에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의로 A를 더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수치로 정량화해서 말씀드리면, 두 개의 학생회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상위 50%에 하나 밀려나는 기구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학생회가 없었으면 A를 받을 수 있었으나, 두 개 학생회가 만점을 받아서 상위의 점수로 랭크됨에 따라서 A에서 B로 바뀌는 곳은 딱 한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가 어딘지는 저기 점수에서 레이팅을 해보시면 대략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두 학과가 만점을 받아서 최상위로 랭크됨에 따라 기존에는 A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0%에 밀려서 B로 되는 학과가 딱 한 군데가 있긴 있고요. 다만 별도로 A를 더 부여하는 것은 관련 규정, 의결한 것에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혹시 그럼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저 기준을 이번 기층기구회계 전까지 수정안을 올려서 그걸 의결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다음 정기 중운위라든가, 그건 좀 안건이 촉박하다면 실제로 저게 분배되기 전까지 저게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저희가 예산안 제출 기한이 20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 서면 의결을 시작해서 실시해가지고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있으실까요? 저희가 논의해야 되는 사항이 전산학부에서 질문 주신 것처럼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와 뇌인지과학과 번역 점수와 감사 점수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인데요. 일반적으로 감사랑 번역의 취지는 소위 말하는 당근과 채찍에서 이제 채찍에 가깝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깎이는 점수입니다. 이게 감사를 잘하면 100점, 못하면 0점이 아니라 기본 100점에 시작해서 못할 때마다 점수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 학생회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매긴다거나 아니면 0점을 준다거나 하는 거는, 새롭게 생긴 학생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소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여서, 우선은 만점으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부 점수에 한해서라도 일전에 번역 평가 점수 같은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평균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었고, 감사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최신의 감사 보고서가 없으면 몇 년 전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만점을 부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우도 가능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저는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뇌인지과학과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의 번역 평가 점수와 회계감사 보고서 감사 점수에 대한 의견, 만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의견, 그리고 그 내용과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만점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더 없으시면...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에서 50% 이내인 기구들에 한해서 A 등급을 부여한다고 기준을 정했다고 했었는데 혹시 공동으로 50% 안에 들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정해진 바가 있나요?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을 저희가 저거 가이드라인

심의할 때, 아마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원래 그래서 반반 나눠서 A,B 주기로 했었는데 상위 50% 이내로 그렇게 멘트를 수정했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그렇게 했던 게...

○의장 한정현: 예를 들어, 공동 점수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18개 학생회 중에 공동 9등이다 하면 둘이 같이 B로 갔습니다, 가는 식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박병찬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그때 기층예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주셔서 아마 비슷한 논의가 진행된 걸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네, 그 부분 기억하고 있고 그때 B로 하기로 논의를...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근데 그게 소위원회 내부에서...

○의장 한정현: B로 하면은 A가 많아지는 거죠, 공동 점수가 있을 때. 반대로 그러면 상위 50%를 B로 해서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 1등급이 없는 것처럼 퍼센트가 늘어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공동 점수로 부등하는 것들을 다 B로 바꿔서, A를 받는 단체가 좀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가게끔 하는 식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가이드라인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그 내용으로 심의의결해가지고 50%로 규정이 됐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총학생회장님 의견처럼 만점으로 부과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다른 대안이 딱히 없을 것 같네요.

○의장 한정현: 추가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서류 제출을 3일, 4일씩 늦게 하셔가지고 C등급 받으면 그거를 제외하고 또 A, B를 매기는 거여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는 해두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현재까지 감사 보고서나 번역 보고서로 C를 받는 기구는 없어서요. 아마 C를 받게 된다면은

지각 제출이 그 유일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산학부 추가로 발언 요청하신 걸까요? 네,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위원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따라 논의안건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 논의안에 대해서는 제안 드린 기층기구회계 분배안대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에 더해서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그 이후에 개최되는 의결기구 출석 점수 및 서류 지각 제출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감사 보고서, 감사 점수가 부재한 뇌인지과학과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번역(평가)보고서, 번역 점수가 부재한 뇌인지과학과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점수를 각각 만점으로 하는 내용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 논의의 결론에 대해서 별도로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논의안건 제2호를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의장 한정현: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기구에 번역 점수나 감사 점수, 그리고 출석 점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내일 8월 17일 오후 8시까지 총학생회로 이메일을 통해 문의를 해 주시면 확인 후에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그 내용으로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에 따라 각 기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논의 안건을 상정해서 다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안 및 사업계획서 안건을 작성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편리하게 안건을 작성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 언제까지나 보도자료로 활용해 주시면서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총학생회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논의안건 제2호도 마치겠습니다.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의장 한정현: 네, 논의 안건 제3호입니다. 제3호하고 제4호는 내용이 조금 길 수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현재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됐는데 5분 정도만 휴회하고 지행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휴회를 제의드립니다. 해당 안건들도 1~2시간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1시간 해서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회의를 속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각 22시 08분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회를 선언하기 전에 정회 선언 점검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한 위원께서는 그리고 대리인께서는 줌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08분까지 성원 확정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정회 선언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더 재석 입력하신 분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성원대로 현재 시각 22시 08분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5분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정회 22:08)

(속회 22:18)

○의장 한정현: 네, 말씀드리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회의를 속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한 중앙운영위원회께서는, 그리고 그 대리인께서는 속회 성원점검을 위해 줌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시 16분까지 속회 성원 점검하겠습니다. 서기로 들어오신 재정사무국장께서는 속회 성원을 점검하여 간사 대리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사 대리께서는 성원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대리 최우정: 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석 중앙운영위원 21명 중 재석 1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각 22시 18분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를 속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 심의하겠습니다.

7.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학생회칙 제166조제3호 및 제177조 등에 따른 격려금의 폐지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부터는 지난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줌 대기실에 한두 분 계시는데 서기로 참여하신 재무국장께서는 확인 후

입실 기록 체크 후에 회의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타 대학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격려금과 유사한 제도의 회칙상 존재 여부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POSTECH, UNIST, 충남대학교, 부산대학교,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에 대해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두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AIST 대학원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학생회칙에 격려금이 아닌 활동비를 규정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회장단, 집행부원, 기구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해당 규정은 27페이지에 첨부한 KAIST 대학원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활동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협조로 학부·학과 학생회 근로장학생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확인된 산업디자인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융합인재학부, 전기및전자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등의 학부·학과에서는 당장 23년도 하반기부터 학부·학과 학생회 대상으로 근로 장학생 등록이 어려움은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학과 행정팀이 말씀해 주실 때 학생지원팀에서 TO를 올려주었으니 거기에 학생회장을 넣어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이메일로 안내해 드린 내용이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학과 행정팀 별로 배정된 TO가 있는데, 그 TO 안에서 필요에 따라 학과 학생회 임원들을 근로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정해진 학생지원팀 TO 안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서 일부 학생들을 근로장학생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여 신청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써 학과 행정팀에 대해서도 규정된 TO 내에서, 학과 학생회와 행정팀과의 협의를 통해 학과 학생회로 일정 부분을 TO를 배정받을 것을 한번 요청드렸던 사안이고요. 학생지원팀이나 장학복지팀에서 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과 행정팀에서 학과 학생회로 3명을 올린다고 해서 장학복지팀에서 그것을 커트하지도 못하고, 반대로 장학복지팀에서 학과 행정팀에 TO를 꽂아줄 수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어야 했는데 이메일 상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오늘 회의 중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또 관련 결과를 바로바로 공유해 주신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이제 아예 불가능한 사안인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유사한 케이스로다가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근로장학생을 등록한 사례가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학과에서 어느 부서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공개적인 회의에서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런 사례가 있음을 대학원 총학생회를 통해서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으며, 비단 격려금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이 학생회장을 포함한 격려금 수혜 대상자에게 돌아가는 리워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격려라는 이름 하에, 명확한 가이드나 기준 없이 그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여러 시간과 여러 회의를 소모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 활동비의 개념이 되었건 수당의 개념이 되었건, 좀 더 명확하고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이 제도를 개편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뭔가를 만들 때, 격려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절차상 맞기 때문에 폐지 논의안이라고 올린 것이고요. 격려금 등 학생회 임원들에게 가는 모든 리워드를 원천적으로 없애자라는 내용은 아님을 혹시 몰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논의안건 제4호로 제안된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함께 논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한 번씩 아셨을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는 지난 회의 때 제안되지 않은 의견이나 아이디어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산학부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과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혹시 그러면 만약에 오늘 회의에서 격려금 제도를 폐지해서 약 천만원 이상의 학생회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된다면 어떤 용도에 얼마나 사용이 될지, 그리고 큼지막한 예산 지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알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말씀 주신 부분은 안건지 25페이지 경과조치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회비 20%에 상당하는 금액 1160만원 상당은 학생회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서 기층기구 회계 및 중앙회계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용하는 비율은 전용안을 의결을 할 때 정할 수 있어서 현재 기층기구 회계 분배안과 중앙회계 분배안이 어느 정도 확정된 상태인데, 이 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격려금의 50%를 70%를, 좀 덜 부족하다 생각되는 부분에 격려금의 30%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화자치기금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지난 전학대회에서 의결된 문화자치기금의 %를 0%로 만드는 부분과는 다소 상충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경과조치 부분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층기구 회계 및 중앙회계로 전용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전학대회에서 의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전학대회 때 논의했던 문화자치기금 0%의 경우, 그 당시에는 해당 논의가 유효했으나 그 이후에 문화자치기금이 현재 고갈된 상태인데 고갈된 이후로도 학부총학생회 산하 자치기구 및 특별·전문기구에서 문화자치기금을 문의하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이후 경과에서 조금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전용 의결을 할 때 비단 기층기구회계랑 중앙회계에 국한되지 않고 문화자치기금으로까지도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자치위원회와의 협의가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용도 회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관련된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서 전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 더 받겠습니다. 네 총학생회장께서 발언권 신청해 주셨는데 혹시 발언의 골자가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번과 중복된 내용이면 다른 분들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고자

하고요. 다른 내용이라면 발언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혹시 지난번과 중복된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장 한정현: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해 주신 내용과 똑같은 내용일 경우에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 한 번씩 다 들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걸 먼저 듣고자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다른 내용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알겠습니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총학생회장 강동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 논의사항에 적혀 있는 대로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용하여 사용하는 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것 이게 맞습니까?

○의장 한정현: 네,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 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중운위 속기록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회의록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제가 앞선 1, 2, 3안이라고 작성된 게 우리가 투표를 진행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고 Q가 제가 의장님께 질문드렸던 것 A가 의장님께서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Q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가을학기에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서 학교의 재원으로 금액을 마련하여, 학과 학생회장분들께 어떤 금액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논의한 바에 따르면 1안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전용하는 것에 관한 논의가 아니라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라고 하니 폐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는 게 지난번 회의 결과를 따르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네 지난번 회의에서도 잘못 이해하셨다고 제가 정정드렸는데 비단 학교 재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안 될 경우에 1안으로 가겠다고 논의가 된 건 아니었고요. 격려금 대신에

다른 재원을 활용해서 학생회 임원들에게 보상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경우에 격려금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차후에 회의에서 2023년도 하반기 격려금 분배 논의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질의가 되었던 타 대학의 사례나 아니면 각 학과에서 일정 부분 조사해서 알려주신 사례 등을 가지고 기존과 변경된 내용들 위주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내용을 감안해서도 함께 논의를 진행했을 때 이것이 타 재원을 활용해서, 학교가 되었던 외부 수익금이 되었던, 타 재원을 활용해서 격려금을 대체할 수 있는, 혹은 격려금 이외에 뭔가 새로운 리워드가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차후에 회의에서 격려금 분배 논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차후에 회의가 당장에 이번 주 수요일에 개최하는 2023-17회 중운위는 아니었던 걸로 회의 중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회의의 결과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해지는 결과가 어렵다라고 된다면, 격려금 대신에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보완책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결과가 나와진다면은, 차회 회의인데 아마 일정상 21일날 개최하는 중운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회의 일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회의에서, 그 회의에서 격려금 분배 심의안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되셨을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방금 답변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

○의장 한정현: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지난 회의의 내용을 따르고 있고, 그럼 만약에 지난 회의의 내용에 이은 거에 따라서 하반기 격려금 분배 논의안은 언제 심의하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8월 21일날 중운위에서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좋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은 질문 아니었고 제가 방금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후속 질문이 있어서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2안으로 선택했던 이유는 다시 말해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가투표율이 2안이 가장 높았던 데에는 격려금 대신 근로비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경우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격려금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이해한 상황은, 현재 상황은 다른 재원으로서 일하시는 중앙운영위원분들, 혹은 우리 격려금의 수혜 대상자분들께 격려금을 지급하는 게 불가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논의에 따라서 현행 유지, 격려금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이 이해 되셨을까요?

○의장 한정현: 네 충분히 이해됐고요. 다른 재원이 비단 학교 재원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원 중에 학교 재원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학교의 근로 장학생 재원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불가능하다고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내용을 중운위에 보고를 드리면서 다른 재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겠고, 그것이 다른 재원도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다면은 말씀해 주신대로 격려금 분배 논의를 심의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단 기존에 지난번 회의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재원으로서 격려금을 제공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게 선행되어야 되는 논의네요.

○의장 한정현: 기존에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거는 근로 장학생 재원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었고요. 그중에 하나인 근로 장학생 재원이 어렵다고 결과가 나온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럼 혹시 다른 재원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다른 재원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게 당장 이번 가을학기에 그렇게 재원을 마련해서 학생분들께 분배하는 것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은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총학생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추가적인 재원과 관련해서 논의안건 4호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논의를, 의결 순서를 정한 후에 따라 논의안건 4호를 이 이후에 논의하게 될 텐데 해당 안건에 주요 내용에 보면 대표자 격려금 부분에 의결기구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안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본회계가 아니면서 가을학기에 지급이 가능한 격려금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안건을 논의하는 중 다른 안건을 가져온 건 죄송하지만, 논의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격려금 폐지와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중에 대표자 격려금이 정확히 이제 반대급부로 딱 맞아떨어지는 내용은 아니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요. 다른 재원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재원은 일단 있으나 이거를 격려금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제도로서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학부에서 말씀 주신 내용의 골자를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재원이 있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재원은 있고, 실제로 그 논의안건 제4호에 보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을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맞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산학부에서 논의안건 제4호 말씀해 주신 김에, 사실 이거를 같이 가져오는 게 제가 좀 죄송스럽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재원과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 논의안건 4호의 결과에 따라서 논의안건 제3호의 결과도 조금씩

달라질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논의안건 제3호를 연기를 잠시 하고 논의안건 제4호를 심의한 이후에 다시 논의안건 제3호를 심의하는 것이 순서가 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논의안건 제3호에 연기 동의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는,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동의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이나 발언으로 재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먼저 3호와 4호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지금처럼 진행하는 것에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이 지금 맞물려서 순서가 바뀌게 되면 좀 오해가 생길 것 같아서 정정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권 요청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나면 지난번 회의의 결과가 격려금 제도를 유지를 하되, 해당 격려금을 학생회비를 재원으로 마련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하자 2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안은 격려금 금액,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얘기 나왔듯이 한 학기에 약 18만 원가량 분배되었던 그 격려금 금액을 다 유지할 수 있는 재원을 자치 회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다른 재원을 통해서 마련하는 게 가능하면 그 2안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면 1안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격려금은 제도를 폐지하고 그리고 그 외에 학생분들께 이에 대응해서 좀 더, 정말 격려하는 취지의 다른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건 기존의 결과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논의 안건 4호와 3호의 순서를 바꿨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짚고 넘어가고자 발언권 요청하였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였고요. 다만 격려금 제도를 놔두고 재원을 바꾸자라는 얘기는 아니었죠. 제 2안에 보면 격려금 대신 활동비로 변경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격려금 자체의 본질과 성격이 심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격려금이라는 모호한 정체성 대신에 근로비, 활동비 등 좀 더 기준이나 정체성이 명확한 제도로 바꾸자라는 것이 2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회의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별도 이의가 없으면 논의안건 제 3호를 연기하고자 합니다. 의장의 제의와 위원 1인의 재청으로 연기 동의안은 성립되었고요. 연기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제3호 연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 안건 제3호는 연기되었습니다.

8. 논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의장 한정현: 논의안건 제4호를 심의하겠습니다. 논의안건 제4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근거는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입니다. 제안 이유는 학생회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가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대표자의 책임을 고취하는 방안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대표자를 격려하는 방안입니다. 대표자 책임 고취안은 회의 지각, 조퇴, 결석에 따른 사과문 게재안으로, 예산조치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본회 대표자 대상 의결기구 회의에 지각, 조퇴, 결석할 경우에는 결과공고 후 3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 ARA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에 회의 지각, 조퇴, 결석에 따른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입니다. 출결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를 따르며 공고된 회의록상의 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대학 사례로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관련 규정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격려안의 경우에는 의결기구 회의 수당 지급안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학기당 920만 원 상당이고요. 예산 산정 근거는 중앙운영위원 23인의, 연간 약 22회 중앙운영위원회 정기회의, 그리고 전학대회 대의원 50인과 연간 약 4회의 전학대회 정기회의 각 회의당 1만 3천 원의 회의 수당을 지급하면, 학기당이 아니라 연간입니다. 연간 약 917만 8천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여기서 서면 의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재원은 중앙집행위원회 자치(회계)를 재원으로 하며 취업박람회 등 수익금이 한 학기에 대략 한 800만 원 상당으로 수익이 산정이 되는데 그중에 각 학기에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전학대회 및 중운위 회의 1회당 대의원 및 중운위원에게 회의 수당 1만 3천 원을 지급하고 지각 또는 조퇴 시에 반액을 지급합니다. 결석 시 미지급하며, 다만 의결기구 운영세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 의장이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1조에 따른 청가 대의원의 출결 및 제25조에 따른 청가 중앙운영위원은 대리인의 출결에 따릅니다. 출결기준은 마찬가지로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를 따르며 공고된 회의록상의 출결을 기준으로 합니다. 타 대학 사례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으로는 '각종 위원회 등의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지침'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예규가 있는데, 관련 내용을 레퍼런스로 삼았습니다. 논의 사항으로 대표자 책임 고취안 및 대표자 격려에 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격려금의 반대급부로 사용되는 제안은 아니고요. 지난 회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출결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붙임 자료 의결기구 상반기 출석 현황을 보시면은 적색이 결석, 황색이 지각 또는 조퇴이고요. 지각, 조퇴 둘 다인 경우는 빨간색으로, 결석으로 시각화했습니다. 출석률이 좋지 못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련 방안을 논의를 했었고 원래는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올리려고 했으나 관련 논의가 공식위원회 회의보다는 정족수를 맞추지 못한 상태로 일부 위원들의 의견 개진정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격려금 폐지안과는 다르게 회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 올린 안건은 아니고요. 제가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출석률의 심각한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자 어떻게 보면 채찍과 당근으로서 책임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과 격려할 수 있는 방안을 두 개 다 마련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대략은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회의장에 꺼내놓고 논의를 하는 것이 앞선 안건들처럼 거의 역대 최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도 의의를 좀 두고자 안건을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일단 본 논의안의 내용을 시행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일단 현행, 지각, 결석, 조퇴 처리 방안은 학생회장 개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학과 전체 사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학과 분배 금액이 변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회장 개인의 출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학우들이 피해를 입는, 사실상 연좌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기본적인 법 체계며 그것뿐만 아니라 대의 명분이며 뭐며 해서 별로 정의로운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그래서 학생회장 개인에게 줄 수 있는 페널티 수단이 있어야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정족수 미달 혹은 활발하지 못한 참여로 인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중앙운영위원회에서도 본 안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동연 회장께서 채팅으로 '사과문 게재의 경우 전학대회 의결로 징계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결석이 발생할 때마다 전학대회를 열게 되면 시간적으로 소모가 클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해당 내용에서 제시하는 사과문은 우리 회칙 제44조에 규정된 징계로서의 사과문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결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징계로서의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전학대회 정기회의마다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징계로 작성하는 사과문을 제안 드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안건 내용을 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산학부 발언권 요청하신 것으로 확인했는데 발언권 필요하신가요? 네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입니다. 책임 고취안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3일 이내에 사과문을 게재한다고 세부 내용에 적혀 있는데, 3일 이내에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좀 명확하게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걸 정하지 않을 경우에 그냥 무기한 사과문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사과문을 작성하지 않게 돼도 이 조치가 그냥 회칙상에만, 혹은 지금 의결상으로도만

존재할 뿐 실제로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실히 정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신소재공학과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은 회의에 참석을 안 할 때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상 매년 봄 학기 기준으로 신입생, 전체 학과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의 인원이 자기가 뽑지 않은 학생회장이 작년 회의에 불출석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인에게 책임을 더욱 고취하는 해당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더해서 만약 해당 대표자 책임 고취안이 의결될 경우 추후에 기존의 연좌제적 성격을 띠는 운영 기층회계분배시에 출석 점수를 반영하는 것도 제외하는 쪽으로 추가적인 의결 및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종합적으로 의견 주셨는데요. 기존의 연좌제적인 성격을 띠는 운영 비례 점수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되고 그에 더해서 학생회장 개인의 출결에 대한 책임의식 고취를 위해서도 해당 책임 고취안과 격려안이 필요하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동연 회장님께서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권 얻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질문 주신 그 부분에 대한 답은 선거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 주의, 시정명령 주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 선거운동 본부가 선관위로부터 징계로 간주되는 경고, 주의, 시정명령 받을 때 전학대회에서 의결 안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선거를 해보신 분들께서도 대부분 다 보시고 주변에서 하는 것도 보셨겠지만은 일부 서류에 미비된 사항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산학부 학생회장께서 질문 주신 내용과 이어진 내용인데 그에 대해서 이행하는 근거는 선관위의 의결이고요. 회칙상의 근거와 선관위의 의결 회칙상의 근거와 선관위의 의결이고요. 그걸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추가 징계를 주는 방향으로 현재는 조치가 되고 있고 이행하지 않을 때 회칙에서 더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책임 고취안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의 시행 대상들에 대해 위원회 의결로 관련 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전학대회에서 본회 산하기구에 결정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것 등의 규정을 활용해서 전학대회 의결로 이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회칙에 집어넣어서 회칙을 개정해서 당장에 제가 첨부해 드린 한국외국어대학교처럼 여기 총학생회처럼 뭘 더 추가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렵고요.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서 해당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의결기구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명분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회의 감사원에서 활동비를 받는 거에 대해서 중운위에서 논의 안건을 의결한 것처럼 전학대회에서 의결 해가지고 대의원과 중운위원께 집행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장께서도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른 위원들께서도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분들도 발언할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내용 있을 경우에 발언권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회장께서 채팅 올려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여쭙보시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사과문 미게재 시에 추가로 사과문 게재 요구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방금 동아리연합회 회장님 질문에 대해서 생각난 질문이 있는데 혹시 대표자 격려안에 회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의 수당의 지급 주기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의장 한정현: 그 부분을 안건지에는 기재해 놓지 않았으나 기본적으로는 한 달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그러면 혹시 미 기재한 사과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과문이 게재될 때까지 해당 수당 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어떨지 다른 위원분들의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과문 게재를 안 했기 때문에 사과문 게재를 요청하는 웃긴 상황은 생기지는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의장 한정현: 네 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기당으로

지급해가지고 해당 학기에 그런 미게재한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지급하는 방법이 제일 크리티컬하겠지만은 그게 다른 위원들에게 해가 가는 방향이라면 한 달에 한 번을 주기로 지급을 하되 한 달 안에서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경우에 지급을 미루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서 다음 달까지도 회의는 나오되 사과문 게재 안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수당도 미루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볼만 하겠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께서 생각하시는 다른 방법이나 아이디어 있으실까요? 그러면 전산학부에서 준 아이디어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안으로 월급 깎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의견 주셨는데 지급을 미루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산학부에서 말씀해 주신 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롭게 해서 사과문 미게재 시 추가로 더 삭감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팅으로 입력해 주셔서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의를 참석할 때는 마이크를 켤 수 있는 상황에서 참석을 해주셔야겠죠. 그 부분이 만약에 안내가 부족했던 것 때문이라면 제가 나중에는 회의 안내드릴 때 마이크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환경에서 꼭 접속해 달라고 함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그리고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데 ARA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에브리타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학과 학생회, 인스타그램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일지 좀 그런 게 명확히 정해져야 할 것 같고 혹은 개인 sns도 포함이 되는 건지도 좀 정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중운위에서 정하는 온라인 게시판이고요. 하나는 고정이고 하나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RA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저는 ARA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ARA만으로는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 그런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은 다른 부분을 중운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전산학부의 의견 좀 어떠신지 여쭙볼 수

있을까요? ARA만 해도 충분할지 아니면 ARA 외에 추가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한다면 어디가 괜찮을지 이 정도로 의견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저는 현재 교내 학생 사회에서 ARA가 물론 정기회의 결과 공고 등 대부분 공고에 사용되고 있는 공식 플랫폼은 맞으나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학우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만큼 지금 제일 많이 사용되는 익명 플랫폼인 에브리타임 정도가 추가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이에 더해 지금 기존의 안건 지연 제출 및 미제출의 경우에는 사과문을 학부 총학생회에서 회의록에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개인이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생회에 3일 이내에 제출하면 총학생회가 추가로 회의공고 이외에 추가로 게시글을 2개 이상을 작성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장 한정현: 네 말씀해 주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총학생회에서 일괄적으로 공고하는 것도 현재 의결기구운영세칙 상에 회의록에 부가적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정상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총학생회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총학생회장 강동재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여쭙보고 싶은 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 지금 대표자 책임 고취안으로서 작성된 내용으로 시행할 경우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지금처럼 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각 학과에 발생하는 지각, 조퇴, 결석에 따른 피해를 삭제하고 이 고취안만 시행했을 경우에 현재보다 더 활발한 참석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본인은, 나는 우리 학과에 피해가 주는 것은 방지하고 싶지만 내가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은 나에게 어떠한 심리적인 피해 그런 게 없어라고 하는 인원이 있다면 그런 인원에게는 오히려 학과를 위해서 내가 예산을 받는 과정에 있어 나의 활동으로 인해 우리 학과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책임감 있게 회의에 참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기존의 제도와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런 제도를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고취안만 선택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으로서 회의 참여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여기 계신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본인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게 더 효과적일거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생각하신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질문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여쭙보고 싶은 건 이 대표자 격려안에 있어서 재원 마련이 중앙집행위원회는 자체 회계를 재원으로 하고 이 재원은 취업박람회 수익금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건 제출해 주신 의장님께 여쭙보고 싶은 게 취업박람회 수입금 말고도 따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취업 박람회 학기당 수익금이 연간 소요 예산보다 훨씬, 1.5배 이상 되기 때문에 취업 박람회 이외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해 본 부분은 없고요. 저 취업 박람회에는 채용 설명회 등도 포함될 수 있겠으나, 그 부분까지 포함 안 시키더라도 현재는 재원 마련 자체는 충분한 상황이긴 합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취업 박람회의 경우로도 지금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의장 한정현: 예 맞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그러면 혹시 봄학기 때는 그 취업박람회 수익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의장 한정현: 봄학기 취업박람회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생 축제에 사용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그러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취업 박람회 수익금으로 사용할, 이 재원을 마련해서 대표자 격려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학생 축제에 사용했던 그 금액이 우리 중앙운영위원분들 그리고 전학 대의원들의 회의 참여비로 지급이 되는 건데 이게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를 위해 더 좋을지, 왜냐하면 이게 격려금 폐지 안에 나왔던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격려금을 폐지하고 이를 전용해서 다른 우리 총학생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업 등에 사용하자라는 것과는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립니다.

○의장 한정현: 학생회비를 쓰는 격려금과는 좀 다른

맥락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채용 설명회도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금이 이렇게 지출되는 비용보다 훨씬 클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마이너스가 발생해서 축제에 쓸 돈이 예년보다 감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좋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정현: 다른 분들께서 먼저 질문 주셔가지고요.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저 의결기구 운영세칙에 보시면 질의응답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우선 지금 이 취업박람회 지원을 사용하는 게 축제 대신 이 재원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냐는 총학생회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격려금 같은 경우는 4천 명의 학우가 내는 돈을 소수의 학생의 간부가 그 전체 재원의 25%에서 25%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지난 회의 때도 문제로서 인식이 되었고, 그런 점이 문제였다면 지금 해당 자치 재원 같은 경우 제가 총학생회 사정을 잘 알진 못하지만 총학생회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해서 번 돈을 지금 회의를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출석률에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가 물론 개별 학과들의 사정을 모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출석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는 출석률이 저조해서 예산이 까여도 본회계로부터 사업을 한 학기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예산을 충당할 수 있어, 나는 그러면 어차피 내가 가든 안 가든 본회계에서 예산 다 줄 텐데 내가 왜 가라고 생각하는 위원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도를 수정할 경우 거기서 그런 위원분들이 그래도 사과문 게재보다는 게재를 하지 않고 회의를 참석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기존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출석률 개선에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사과문 게재보다는 그냥 가고 회의수당 좀 받겠다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화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먼저 발언권 요청을 하셔서 먼저...

○의장 한정현: 제가 제 화면에 순서가 신소재공학과 먼저 떠가지고 헛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화학과 먼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간사 대리 최우정: 네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입니다. 좀 전에 총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른 중앙운영위원 내 의견을 여쭙보셔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과연 출결을 개선해 줄까라고 여쭙보셨는데, 저는 유의미하게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말 학과를 생각해서 본인의 어떤 금전적 이익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학과 예산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학과의 의견을 대표하여 나오는 회의에 출결을 이미 잘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의견과 유사하게 전임자의 잘못으로 후임 학생회장과 또 그 전 학생회장과 무관한 신입생들이 학습 사업과 그런 혜택을 받는 것에 악영향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처럼 전 출결 사항이 어떤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그 위원 개인에게 가는 페널티로 변경되는 방안이 좀 더 적절하고 또한 추경 상황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전산학부 학생회장 및 화학과 학생회장님의 말씀에 매우 동의하며 총학생회장님의 발언에 한 번 더 반박하고자 합니다. 총학생회장님께서서는 아까 만약에 어떤 대의원이 내가 개인이 쓰는 건 나는 정신적으로

괜찮은데, 우리 학과의 피해가 하는 건 안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의원이 있다면 그게 현행 제도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하에서 출석률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총학생회장님 보시다시피 요즘 출석률 저조하지 않습니까? 총학생회장님 주장이 사실이라면 총학생회장님 주장대로 생각하는 대의원들이 다수라면 현재 출석률이 높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회장 개인에게 패널티가 가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현: 신소재공학과 다소 더 격양되게 발언해 주셨는데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조금 정돈된 톤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총학생회장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장 강동재: 우선 저에게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면 내용이 잘 전달되어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혹 그러한 인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여 말씀드린 것인데 만약에 중앙운영위원분들께서 그것이 맞다 절대 그럴 사람이 없다고 하시면 그럼 그런 논의는 제 잘못된 생각이었던 걸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신 내용에서 정정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행 제도가 나쁘다고 해서 그럼 바꾸고자 하는 제도가 더 좋은지는 그럼 그 제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의견을 여쭙보셔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금 6 전학대회를 진행할 것인데 어느 정도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라고 확인해서 그 현황을 체크해보지 않는 한 현행 제도가 나쁘니까 다음 제도가 무조건 낫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사과문 게시가 의미가 있어지려면 그러면 학생분들이 이 사과문을 보았을 때 이런 우리 과학생회장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참석했구나 그래서 우리 과에 이렇게 피해가 오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무게감을 가지고 과 학생회장분들이 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우에서 생각이었던 건데 여러분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그러면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산학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러면 취업 박람회기 아니라 새롭게 진행한다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의장님께서 발언하신 대학원 총학생회로부터 넘겨받아 새롭게 진행한다는 그런 채용 설명회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원을 마련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서 새로운 돈을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제 이해가 맞다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채용 설명회는 기존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이번에 학부 총학생회에서 넘겨받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부 총학생회에서 새롭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존에 없던 플러스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면서 플러스를, 실제로 수입을 가졌다고 하면 그 수입을 다른 단체, 우리 학교를 위한 단체들에 기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부 총학생회가 넘겨받은 것이 학부 총학생회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일을, 우리 전체 카이스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롭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재원으로 이 오늘 논의한 이런 회의 참석비 등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하나 정정 드리면요. 예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카이스트라는 단위를 잡고 설명하시면 저희가 학교 지원금 받는 것도 카이스트 단위에서는 예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죠. 근로 장학생 쓰는 것도 그렇고요.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채용설명회로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학생 단체에 발전기금 형식으로 지원해 온 것은 맞으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채용설명회를 인계 받고 진행함으로써 기존에 없던 학부 총학생회의 부가적인 수익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하반기 예산안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하반기 예산안이 안 나와서 파악하시는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반기 예산안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총학생회장 강동재: 네, 방금 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채용 설명회를 기존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용하던 금액을 우리 학부 총학생회에서 이번에 넘겨받음으로써 더 많은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그 수입을 기존과 같이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사용했듯이 우리가 학교 축제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활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로서 돈을 더 받아서 우리가 이게 축제에 사용될 금액이 아니라 완전히 별개의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우리 회의 참석비로 지급한다. 이런 내용은 전 잘못되었다고 정정 드린 것입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네, 기존에 축제에 사용되던 재원을 쓰겠다는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실까요?

네, 원래 중앙운영위원회는 위원 간의 합의를 기본으로 표결을 안 하는 게 오랜 전통인데 최근에 이를수록 심의안건은 다 표결을 하고요. 예결산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우들께 우리가 예결산을 이렇게 심의했다를 보여줄 때 수치가 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심의안건은 통상 표결을 해 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논의한 건도 디테일에 있어서나 아니면 그 안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가투표로 정리를 해 왔었는데요. 논의안건 제4호의 경우에도 여러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에 대한 각각 찬반 의견들을 적절히 근거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은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지금 대표자 책임 고취안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권 요청드렸습니다. 현재 사과문의 경우에 동아리 연합회장님께서 조금 격앙된 어조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채팅으로 언급해 주신게 지금 전동대회가 사실 동아리연합회에서는 거의 100명 가까이 참여하는 상당히 큰 행사고 이게 전학대회와 겹친 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경우에 동연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동대회가 우선시되어야 할 거고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회의를 못 가지만 사유 인정은 못 받는 상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동연만의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전산학부 같은 경우도 학과에 아주 큰 사업이 미리 예정되어 있는데 그날 전학대회가 잡혔는데 해당 날에 학생회나 해당 학과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대리를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면 그 학과는 어쩔 수 없이 대의원 수만큼의 사과문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는 경우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 학과 입장에서 자치기구 입장에서 물론 전체 자치기구와의 조율을 위해 전학대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년 중 굉장히 큰 학과 행사를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불참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서 만약 책임 고취안에 사과문 게재가 통과된다면 사유 인정 기준이 조금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경우에 제가 전동대회를 이전에도 언급드렸는데 전동대회 같은 경우에 동아리 내에 연내 종료한 행사의 경우에는 사유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전학대회나 중운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조금 조사해서 해당 자치기구에 정말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미리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사유 인정에 포함을 시키거나 하는 쪽으로 좀 개정이 되면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전산학부에서 주신 의견은 학과나 학생회 내 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를 했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일정 투표율을 올리는데 그 레인지 안 겹치게 회의를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 저도 보시면 동연이 제일 출석률이, 제일은 아니고 동연이 좀 저조한 편이거든요. 학생 사회에서 동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큰데 전학 때 몇 분 못 오셔가지고 저도 같이 회의를 진행하는 1인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일정 투표를 받을 때 저희 전학대회 일정 투표의 슬롯하고 좀 안 겹치게 하면 전동대회 일정을 조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하고 있었는데요. 말씀 주신 내용처럼 그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조정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에 있는 사유의 승인 기준이 상당히 타이트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에서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사유의 승인을 좀 요청을 하실지, 아니면은 사유의 승인에 있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신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예를 들어 자치기구의 집행부가 기준이 됐든, 운영부가 기준이 됐든, 운영부에 얼마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어떤 행사를 자치기구에서 열게 될 경우 이것은 사실상 대리인을 구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모두 인정할 만큼 맞는 상황이니 그런 상황 정도에 대해서는 사유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오라고 해도 못 오는 경우고 그게 개인의 의지 부족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어도 그런 부분에 한해서 인정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네, 우선은 주신 의견 잘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당장에 출결 개선안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층기구회계 분배안에 대한 수정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출결 기준에 대해서도 수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관하여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장의 회의에서 한정 승인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되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회의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승인해가지고 논의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에서 일일이 논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소관 소위원회를 정해서 회부한 후에 정확히는 의결기구운영세칙상의 하급 회의체에 회부한 후에 21일에 개최되는 주문일까지 안을 좀 더 구체화해서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큰 틀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ABCI 제도에 관해서도 그럼 21일날 중운위에서 함께 의결을 해서 한 번에 연관된 사안들을 처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것이 좀 더 각 단위에서 관련 사무 처리하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건 사업에 대해서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면서 채워나갈지, 두 번째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 디테일을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디테일을 하급 회의체에서 만들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오늘 이거 하급

회의체까지 정해서 마무리할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의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지금 논의안건4와 관련해서 추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현행 ABCI 제도의 변경과 그리고 회의 관련 의결기구운영세칙인가요? 지금 그 사유에 대한...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출결을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를 따르며, 이에 더해서 뭐뭐로 할 수 있다 정도로 저희가 안을 의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논의 및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현행 ABCI 제도의 개편의 경우 당장 다음 학기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22일까지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중운위가 21일이라 그렇게 됐을 경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너무 많이 수정되어야 하는 학과가 생기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해서 서면의결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을 서면 의결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 차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등을 거치거나 혹은 거치지 않더라도 차회 중운위에 안건이 부의돼서 올라온다면 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의 논의를 마무리할 때, 그 두 가지 내용은 각각 차후 서면 의결과 차회 중운위에서 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논의 및 의결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의견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분들께서도 의사진행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학부에서 주신 의견은 이제 기층기구 헤드 분배할 때 저희가 이 대표자 책임 고취안과

격려안을 가져가게 된다면 출결 점수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긴급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21일 중운위에서 심의하여도 당장의 큰 업무상에 차질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한정 승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정 승인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 등에서 논의해서 가져오는 걸로 또 말씀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마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리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리연합회 여러 가지로 의견 주셨는데요.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 없으신 걸로 보여서, 그러면은 전산학부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논의안건 제4호의 결과로서 문구를 구성하기 참 어렵네요. 대표자 책임 고취안 및 대표자 격려안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동의를 하되 대표자 책임 고취안에 출결 기준을 자치기구의 사업 등 상황을 고려해서 좀 더 확대할 것, 그리고 대표자 책임 고취안이 논의 차원에서 인정이 됨에 따라 기층기구회계 분배 기준에서의 출결 점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의결 진행할 것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출결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은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구체적인 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받고 이를 반영해서 8월 21일에 개최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부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급 회의체는 제가 아마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논의안건의 결과에까지 하급 회의체를 실어 놓으면 소위원회에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별도로 넣지 않고 하급 회의체하고 소위원회 정도로 명시만 해두되 해당 회부할 소위원회는 제가 위원장 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회칙 개정 소위원회 또는 기층 예산소위원회 정도로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국회 운영위원회처럼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회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으 텐데 아쉽게도 그런 안건들이 정기적으로 부의되지는 않다 보니까 별도로 만들어 둔 적도 없고 또 33대 총학생회에서도 그런 소위원회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으나 위원 여러분의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소위원회 위원장분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청원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이 내용대로 논의안건을 정리하여 마칠 경우에는 대표자 책임 고취안에 대한 부대결의로서 서면의결로 기층기구회계 분배안에 출석 점수를 삭제하는 의결을 진행할 거고요. 소집 공고 기한이랑 서면 의결 기한 준수해서 저희가 서면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21일 개최하는 중운위까지 안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가 추진을 하고 신경 쓰겠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진행 상황에 모두 진행 방향에 모두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아까 몇 가지 질의로 나왔던 예를 들어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총학생회장단 측에서 구체화 및 정리를 해서 안건을 마무리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논의를 마무리할지 좀 궁금합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네 좋은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자 책임 고취안의 세부 내용과 출결 기준을 포함해서 소위원회 하급 회의체에서 검토보고를 받고 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괜찮을까요? 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손을 잘못 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표자 책임 고취안 및 대표자 격려안으로 구성된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에 관하여서는 대표자 책임 고취안과 대표자 격려안의 필요성을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인정을 하되 대표자 책임 고취안의 세부내용과 출결 기준은 하급 회의체에 회부하여 검토보고를 받고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사항을 정해서 8월 21일에 개최하는 중앙운영위원회로 부의될 수 있도록 하고 대표자 책임 고취안에 대해서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의 적절성과 당위성에 대한 인정이 있음에 따라 기층기구회계 분배안 및 ABCI 제도 도입안의 수정안에 관하여서 출석 점수를 제외하는 방향의 서면 의결을 실시할

것으로 논의안건의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덧붙이자면 서면 의결은 22일 예산 제출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서 예산 제출 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내용대로 논의안건 제4호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안건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며 의장으로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그러면 연기된 논의안건 제3호를 다시 심의하겠습니다. 네,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칙 제56조제6호에 따라 상정된 격려금 폐지 제도 논의안이 연기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기되었고요. 논의안건 제4호의 심의를 마침에 따라 다시 상정도록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제안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질문이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소재공학과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입니다. 방금 논의안건 제4호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격려금 폐지 수순은 아마 자동으로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격려금을 그러니까 본 논의안건 제3호에 대해서 격려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논의를 빠르게 마쳐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좀 정정고자 하는 것은 논의안건 제4호와 제3호가 연결된 수순은 아니고요. 다만 논의안건 제3호 심의 중에 그럼 다른 재원이 과연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논의안건 제4호에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논의안건 제3호를 연기하고 논의안건 제4호를 먼저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원이 있는가에 대한 답은 저희가 논의안건 제4호를 심의하면서 충분히 다들 스스로 답을 내리셨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심의, 원안 내용대로 의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될 사항으로는 전산학부에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전용할 때, 전용 의결할 때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만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치기금도 포함해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들께서도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리인들께서도 의견 주실 수 있으니까요 발언권 얻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산학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남겨놓기 위해 안건을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 비율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기층기구회계, 중앙회계 그리고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용 비율로 수정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논의안건을 정리할 때 의결을 할 때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경과조치에 대해서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부의 전용뿐만 아니라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용도 포함한다. 로 안건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분들 의견도 마저 듣고 안건을 마무리할 때 제가 별도 이의가 없으면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질문이나 의견을 받겠습니다.

지난 회의에서 한 번 다룬 안건이기도 하고 또 논의안건 제4호를 다루면서 여기서 발생한 의문점들이 일부 해소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더 드리는 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들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의견 더 없으시면 우선은 원안의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부터 수정하는 의사 진행부터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염두하셔서 고민하시다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원안 내용의 경과조치는 "2023년도 하반기 학생회비 분배안 중 격려기금 비율 2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학생회칙 제180조제2항에 따라 기층기구 회계 및 중앙회계로 전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화자치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전산학부 학생회장의 의견에 따라 '기층기구회계,

중앙회계 및 문화자치기금'으로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이의가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실까요?

별도로 이의가 없으므로 논의안건 제3호에 원안의 내용에서 경과조치 부분을 "기층기구 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에서 "기층기구 회계, 중앙회계 및 문화자치기금으로 전용"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정된 내용으로 심의 및 검토를 마저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 더 없으시면 본 논의 안건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원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격려금 제도를 폐지하기로 논의함. 원안의 내용 중 경과조치에 관하여서는 학생회칙 제180조에 따라 "기층기구 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을 "기층기구회계 중앙회계 및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용"으로 수정함. 이렇게 안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대로 논의안건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을 정리하고 안건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에 부의한 안건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가적인 의사일정이 없으므로 폐회 성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한 중앙운영위원 및 그 대리인께서는 줌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각 23시 37분인데 38분까지 폐회 성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채팅창에 재석이라고 입력해 주시는 것으로 폐회 성원 점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회 성원 점검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각 23시 38분 제2023-17회 중앙운영위원회를 폐회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수고하셨습니다.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네 회의실 종료하겠습니다.

(23:38 폐회)

결 과

● 주요내용

○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사퇴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원안대로 접수함.

○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논의안건

(제1호)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 논의안

- 제안한 2023년도 하반기 중앙회계 분배안을 가이드라인으로 각 기구에 중앙회계를 배분하기로 논의함.

(제2호) 2023년도 하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 논의안

- 제안한 2023년도 상반기 기층기구회계 분배안의 기준 및 점수를 사용하여 각 기구에 기층기구회계를 배분하되, 뇌인지과학과 학생회 및 반도체시스템공학과에 감사 점수 및 번역 점수는 각각 만점으로 하기로 논의함.

(제3호) 격려금 제도 폐지 논의안

- 원안대로 격려금 제도 폐지를 추진하되, 경과조치의 기층기구회계 및 중앙회계로의 전용을 기층기구회계, 중앙회계 및 문화자치기금으로의 전용으로 수정하기로 논의함.

(제4호) 의결기구 회의 출결 개선 논의안

- 원안대로 의결기구 회의 출결을 개선하기 위한 대표자 책임 고취안 및 대표자 격려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되, 대표자 책임 고취안의 세부내용 및 출결기준은 하급회의체에 회부하여 검토 보고를 받고 중앙운영위원회 8월 정기회의에서 정하기로 논의함.
- 대표자 책임 고취안을 추진함에 따라 '기층예산심의회의 기층기구 예산 편성기준 명문화 및 ABCI 제도 도입안 수정안'의 내용을 출석 점수를 삭제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서면의결로 심의·의결하기로 논의함.

● 표결결과

안건	재석	찬성	반대	기권	결과	비고
보고안건 제1호 총학생회장단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2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보고안건 제3호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내부호선 보고	-	-	-	-	원안 가결	이의유무 표결
심의안건 제1호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3	13	0	0	원안 가결	

【표결사항】

○ 심의안건 제1호

재석 중앙운영위원(13인)

찬성 중앙운영위원(13인)

총학생회장 강동재 / 부총학생회장 한정현 /
동아리연합회 회장 오윤석 / 물리학과 학생회장
박세현 /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왕예준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이돈영 / 신소재공학과

학생회장 이창섭 / 융합인재학부 학생회장 김시은 /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생회장 박성빈 /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홍의상 / 전산학부
학생회장 박병찬 /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윤이습
/ 화학과 학생회장 최우정

반대 중앙운영위원(0인)

기권 중앙운영위원(0인)

상기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함.

의 장	한 정 현	<u>J. H. Han</u>
위 원	강 동 재	<u>강동재</u>
위 원	윤 서 진	<u>윤서진</u>